

『모모의 여름 방학』 독후 활동지



아엘 아쌍 글 | 박재연 옮김
불광출판사 | 128쪽 | 초등5~6학년

“

세대와 인종을 초월한 우정과 성장 이야기
프랑스 크로노 상, 트리올로 상, 발렌시엔 상, 피티비에 상 수상작

”

활동1 책 읽고 이해하기

다음 문제를 풀며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 봅시다.

1. 모모가 사는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2. 모모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용 공동주택)

3. 모모가 처음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

- ① 친구가 빌려주었음
- ② 엄마가 사 주셨음
- ③ 교장 선생님이 책 목록을 주셨음
- ④ 도서관에서 우연히 찾았음

4. 모모가 도서관에서 제일 처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

5. 에두아르 할아버지는 모모에게 ‘공화국의 어린 왕자’라고 말하며 모모의 어깨에 지팡이를 대고 기사처럼 ‘임명’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칭호’를 받고 싶나요? 여러분만의 ‘칭호’를 만들고, 그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예: “나는 책을 사랑하는 마법사야!”, “나는 상상력의 탐험가!”)

● 내가 받고 싶은 칭호:

.....

● 그 이유:

.....

.....

.....

6. 모모는 벤치에 누워 '자기만의 섬'을 상상하기를 즐겼어요. 여러분만의 상상 속 '섬'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곳은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소리가 들리며, 누가 함께 있나요? 그곳을 짧은 글로 묘사해 보고 글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활동2

나를 알아주는 사람, 친구

친구란,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책 속 모모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그 질문을 떠올리며, 아래 문제들을 함께 풀어 봅시다.

1. **처음 친구가 된 순간:** 모모는 벤치에서 처음 만난 에두아르 할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친구가 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 처음 어떤 말을 주고받았나요?

-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2.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날, 모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날 밤 모모가 일기장에 썼을 것 같은 이야기를 상상해서 써 보세요.



3. 나도 모모처럼 누군가에게 용기를 얻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일이나 마음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4, 모모와 에두아르 할아버지는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지만 마음을 나누며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어떤 사이를 '친구'라고 부를까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써 보세요.



활동3

책이라는 세계

책이란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모모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책이 있나요? 이제 여러분만의 책 속 세계를 떠올리며, 아래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1. 책 속에서 모모는 처음으로 도서관에 등록하면서 긴장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요?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처음 도서관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경험을 했나요?

-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2.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의 책’이 있나요? 마음에 오래 남아 있거나, 나를 바꿔준 책이 있다면 소개해 보세요. 그 책이 왜 특별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함께 써 봅시다.

3. 모모는 에두아르 할아버지와 함께 여러 책을 읽었어요.

그 책들은 모모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줬답니다.

- 『방드르디, 야생의 삶』 (미셸 투르니에)
-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 『자기 앞의 생』 (로맹 가리)

모모가 읽은 위의 세 책 중 하나를 골라, 모모가 그 책을 읽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봅시다.
책 속에서 모모가 생각이나 마음, ①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장면을 찾아 그대로 옮겨 쓰고,
②그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모의 변화를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 봅시다.

<예시>

① 내가 찾은 장면: 모모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잘 볼 수 있다고 말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모가 왕자이면서 시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수아드와 에두아르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본 것일 테니까요.

② 책을 읽은 뒤 모모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모는 『어린 왕자』를 읽고,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민자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여우의 말이 큰 힘이 되었지요. 이후 모모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를 믿게 되었어요.

① 내가 찾은 장면:

② 책을 읽은 뒤 모모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활동4

이민자에 대해 생각해요

모모는 아랍계 이민자입니다. 말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책과 사람을 만나며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요.
우리 주변에도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고,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1. 모모가 가족들과 지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책 속 내용을 떠올리며
그 장소에 대해 써 보세요.

2. 책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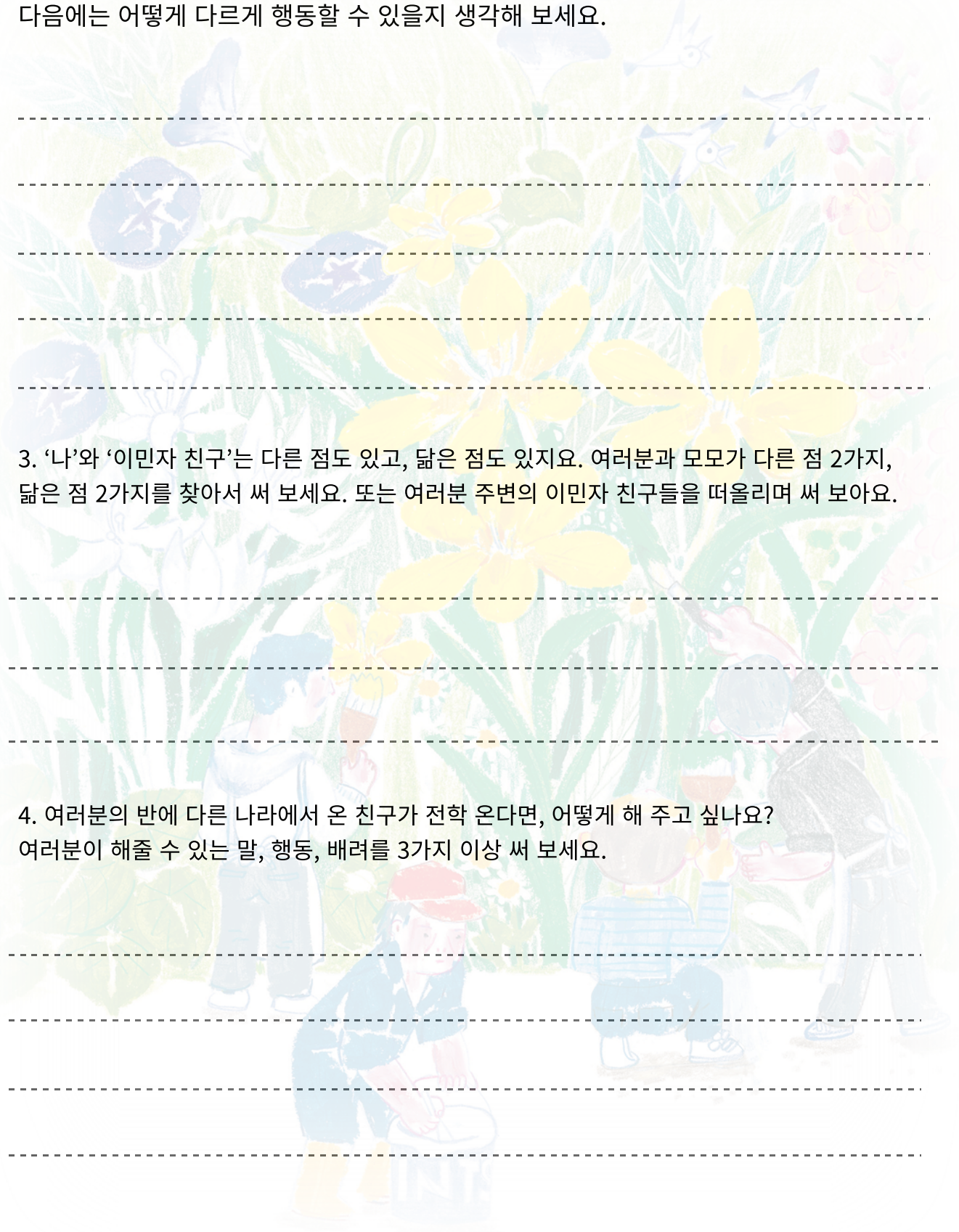
‘잘 자란 아이인걸. 수레국화마을에서 저렇게 예의 바른 아이는
본 적이 없는데. ①아이들이 모두 저 아이 같다면 좋겠네!’
아주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주머니의 속마음을 읽지 못하는 야스미나 누나와 모모는
아주 친절한 아주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②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수레국화마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 2-1. “아이들이 모두 저 아이 같다면 좋겠네!”라는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이 말이 겉보기에 칭찬 같지만, 왜 차별적인 말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2. 사람들은 가끔 밑줄 친 ②처럼, 겉모습이나 출신만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곤 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졌던 적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3. ‘나’와 ‘이민자 친구’는 다른 점도 있고, 닮은 점도 있지요. 여러분과 모모가 다른 점 2가지,
닮은 점 2가지를 찾아서 써 보세요. 또는 여러분 주변의 이민자 친구들을 떠올리며 써 보아요.

4. 여러분의 반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전학 온다면, 어떻게 해 주고 싶나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 행동, 배려를 3가지 이상 써 보세요.



활동5

나만의 꿈을 찾아요

모모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즐겁고 설레는 일이
미래의 꿈으로 자라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나만의 꿈을 떠올려 봅시다.

1.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자주 생각나는 것, 하고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꿈의 씨앗’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를 적어 보고,
그 중 하나를 ‘꿈’으로 키운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써 보세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

이 씨앗이 꿈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2. 1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꿈을 이루고 있는 ‘미래의 나’가 지금의 나에게 쪽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쪽지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 한 문장을 상상해서 써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적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적혀 있는 문장:

이유:
